

# 유·스퀘어 일대 부동산 '핫플레이스'로

### 광천동·쌍촌동·화정동 등 중·소 아파트, 오피스텔 건립 붐 상무지구보다 분양가 저렴 교통·쇼핑 요충지... '수익형' 부상

광주 유·스퀘어 주변 광주시 서구 광천동·쌍촌동·화정동 일대에 중·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잇따라 건립되고 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보다 저렴한 도심형 중·소형 주거 시설이 각광을 받고 있는 덕분이다.

또한 외지인들이 가격이 다소 비싼 상무지구 등 광주의 다른 지역보다는 터미널과 쇼핑 시설 등이 몰려 있는 유·스퀘어 주변을 선호하다 보니 이 주변에 최근 아파트 중·소형 주거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특히 유·스퀘어 주변의 나이트 클럽들의 잇단 폐업으로 주목했던 상권도 이들 시설이 들어서면서 유통인구가 크게 늘어 답답해 복되고 있다.

8일 광주시 서구청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스퀘어 주변에 오피스텔과 중·소형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건립 중이다.

이미 U오피스텔의 경우 화정동 520세대, 농성동 300세대 입주를 마쳤고, 모기업이 건물을 짓다 방치해 둔 유·스퀘어 주차장 뒤편 부지에는 현재 지하 6층, 지상 20층 규모의 H 중·소형 주상복합이 건립중이며 285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또 인근의 나이트클럽 영업이 중단된 곳에도 모 업체가 소규모 평형의 임대아파트를 건립중이고, 다른 나이트클럽 부지에도 다른 업체가 주상복합 건물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유·스퀘어 인근에 중소 규모 주거시설이 몰리고 있는 것은 상무지구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해

1인 가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는 원룸 기준 분양가가 상무지구에 비해 이곳이 2000여만원 저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터미널과 상무지구 등지로 연결되는 교통편이 좋고, 주변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식당가 등지가 잘 정돈돼 있어 주거 환경도 편리해 타지역 출신들 사이에서도 이곳은 인기가 높다.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 매매기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불경기 탓으로 아파트와 상가의 임대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1~2인 세대 거주 주택시장이 새로운 수익형 부동산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의 원룸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투자비용이 많은 반면, 이들 오피스텔 등은 매매가격이 저렴하고 임대 수입을 올릴 수도 있어 분양도 잘 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말이다.

사람이 몰리다 보니 주변 상권도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유·스퀘어 일대는 한 때 노래방과 나이트클럽 손님을 겨냥한 술집과 모텔 중심의 대표적인 광주의 유흥가로 손꼽혔다. 하지만 나이트클럽의 폐업 등으로 찾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줄어 문을 닫는 곳도 줄을 이었다.

최근 이들 주거시설의 입주가 시작되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젊은층에 인기인 기업형 포장마차촌이 건립되는 등 상권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곳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과거 이 일대는 해장국집과 횡집 등이 몰려 있고 매일 밤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길게 줄을 섰었는데 나이트클럽 폐업으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면서 "최근 이들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혼자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혼밥족, 혼술족' 손님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광주기자 kroh@kwangju.co.kr

## 한전, 입사하고 싶은 공기업 1위

### 사람인 조사... 건보공단·철도공사 順

취업포털 사람인은 대학생·구직자 1693명을 대상으로 '가장 입사하고 싶은 공기업'을 조사한 결과, 한전 전력공사가 8.3%로 1위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사람인에 따르면 2위는 7.3%가 선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었다고, 3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5.4%)였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5.1%), 국민연금공단(5.1%), 한국토지주택공사(LH, 4.3%), 한국수자원공사(4.1%), 한국전력기술(3.8%), 강원랜드(3.7%), 한국과학기술원(3.6%)이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공기업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로는 37.3%가 '정년 보장 등 안정성'을 꼽았다. 이어 '정식된 근무 환경'(23%), '사내복지, 복리후생 혜택'(14.1%), '높은 연봉'(7.9%) 등 순이었다.

공기업 취업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14.6%가 '출신학교(학벌)'이라고 답했다. 이어 '인턴 등 실무 경력'(13.8%), '자격증'(12.3%), '인재상 부합'(11.7%), '인맥'(10.1%), '전공'(9%), '외국어 능력'(6.8%), '대외·사회활동 경험'(6.7%), '어학 성적'(5.3%) 등 순이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292.76 (+51.52)
- ↑ 금리 (국고채 3년) 1.71% (+0.03)
- ↑ 코스닥 643.39 (+8.28)
- ↓ 환율 (USD) 1131.40원 (-1.30)

## 천정부지 코스피... 2,292.76

### 51.52P 올라

코스피가 무서운 기세로 새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코스피는 8일 전 거래일보다 51.52포인트(2.30%) 오른 2,292.76으로 장을 마쳤다. 전 거래일인 4일 6년 만에 종전 사상 최고치(2,238.96)를 갈아치운 코스피는 이날 더 강한 기세로 상승했다. 이날 상승 폭은 2015년 9월 9일 55.52포인트(2.96%) 이후 약 20개월 만에 가장 크다. 고가와 저가의

차이를 의미하는 일중 변동폭은 48.53포인트로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시가총액도 1487조32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983년 코스피 시가총액이 3조4900억원이던 것과 비교하면 430배로 덩치가 커졌다.

최근 코스피의 상승은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가 행진과 외국인 매수에 힘입은 바가 크다. 삼성전자는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3.30% 급등한 235만1000원으로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연합뉴스

### 서광주세무서 영광민원실

#### 영광읍 영광빌딩 4층 이전

서광주세무서(서장 노대만)는 영광지역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 영광읍 KT빌딩에서 운영 중이던 '영광 지역민원실'을 영광읍 한전사거리 영광빌딩 4층으로 이전했다.

'영광 지역민원실'은 '2014년 7월부터 KT빌딩 3층에서 운영해 왔으나 그 동안 접근성이 떨어지고 고령의 납세자들의 불편을 이유로 바뀐 건물로 이전, 보다 편리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영광 지역민원실'은 원거리 세무서 방문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영광 지역민원실'에 오는 15일 ~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창구를 운영하여 방문없이 신고·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



현대기아차 "어르신들 감사드립니다" 8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월드비전 무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현대차 광주지역본부 임·직원과 어린이집 원생, 어르신들이 행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아차 제공)

## 은퇴 못하는 노년... 일자리 못찾는 청년

### 60세 이상 취업자 5년새 107만명 증가... 청년층 10만명 늘어

노인 인구가 늘면서 고령 취업자는 크게 증가한 반면, 청년층은 실업률만 늘고 취업자 증가폭이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는 398만3000명으로 5년 전인 2012년 3월(291만1000명)보다 107만 2000명 늘어났다.

5년간 일하는 고령층이 100만명 이상 늘어났다. 이 기간 전체 취업자 수는 2426만5000명에서 2626만7000명으로 200만 2000명 증가했다. 늘어난 취업자 수 가운데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에 속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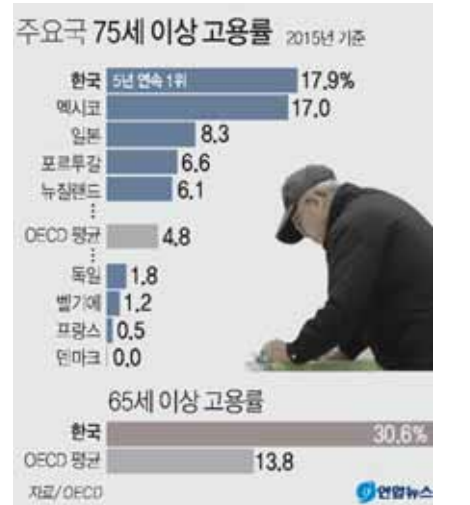
고령층 취업지표가 상승곡선을 그리는 사이 청년층 취업자는 제자리 걸음을 했다. 3월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392

만4000명으로 5년 전(381만8000명)에 비해 10만6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전체 취업자 증가폭의 20분의 1 수준이다. 60세 이상과 비교해도 약 10분의 1에 불과하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청년 취업자 수를 뛰어넘은 것은 지난해 8월로 1982년 연례별 취업자 수를 집계한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아직까지는 60세 이상 취업자 수와 청년 취업자 수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머지 않아 고령 취업자 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연령별 취업자 구조가 변한 첫 번째 요인은 고령화다. 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취업자 비중도 증가한 것이다.

지난 3월 60세 이상 인구는 1022만명으로 2012년 3월(818만800명)보다 203만



2000명이나 늘었다. 일을 하려고 하는 경제활동인구도 301만2000명에서 409만 500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 임대분양

나주의 중심심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임박!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 1F 767㎡ 약국입점확정, 커피전문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죽전문점, 대형전시장
- 2~5F 794㎡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원 환경
- 6F 743㎡ 전문병의원 및 뷔페 레스토랑 등 대형연회장 환경

친철상담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

#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물, 모방물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